

예술가가 진행한 감성교육에 참여한 의과대학생들의 반응

- 교과목 외 교육활동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오승민, 정태섭¹

Extracurricular medical education using artists as instructors
- A case report on extracurriculum program-

Seung-Min Oh, MD, Tae-Sub Chung, MD, PhD¹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¹Department of Rad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Abstract =

Extracurricular medical education using artists as instructors

- A case report on extracurriculum
program-

Purpose: As introducing a case on extracurricular medical education using artists as instructors, we purposed to make significant implication on the technology-centered medical education.

Methods: A case on extracurricular medical education using artists as

instructors was introduced and the response of participants among medical students was presented and analyzed.

Results: 25 medical students and 5 artists participated in this extracurricular medical education program. Each 5 artists' special area were an oil painting, an illustration, a documentary photo, a play, and an animation. Participants' satisfaction of this program was high among medical students. They thought the time with an artist as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understanding not only human-being but also himself or herself.

Conclusions: The application of this learner-centered and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 using artists as instructors needed further consideration in medical education. Medical students'

교신저자 : 정태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120-752)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50번지
전화 : 02-2228-2418, 팩스 : 02-364-5450

meeting with artists can fill the lost art of medicine.

Key Words: extracurriculum, medical education, art, students, response, learner-centered, teaching skills

서론

의학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경시하고 인간의 생명현상에만 집중함으로써 사회, 문화, 예술, 자연과의 다양한 연관을 잃어버렸다(강신익, 2005). 의료는 그 사회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과 철저히 연결되어 강력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종합적 현상이나 의사들은 그런 의료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사가 되어 활동을 하여 온 것이다(전우택, 2001). 의학과 의술은 단지 '치유기계(healing machine)'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의사는 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환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이해하며 돌봐주는 역할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만이 아니라 깊고 폭넓은 인간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병원이 기계중심이 되면서 인간적인 접근이 상실되어, 환자가 마치 수리공장에 들어간 자동차와 같은 처치를 받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의 의학교육 환경에서는 질병만 보고 환자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의사, 질병만 알았지 건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의사, 윤리적인 예민성이 결여된 의사 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의학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이에 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의과대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이호영, 2006). 이미 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에는 의료의 지나친 기계화, 도식화에 대한 반발로 소설, 시, 드라마, 미술 등으로 표현된 건강과 질병에 대한 다양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다루어오고 있다(Charon, 2000).

이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의료와 사회', '문학과 의학' 같은 정규 교과목의 과정으로 의과대학생들이 의료 기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균형잡힌 안목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번 2008년도 1학기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규 교과목 외의 과정으로 소설, 시, 연극, 미술 등 각 문화 영역의 예술가가 직접 의과대학생들과 만나고 교육받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글에서는 정규 교과목 외의 과정으로 진행된 예술가들의 소그룹 교육 프로그램과 이에 참여한 의과대학생들의 태도와 반응을 살펴보고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된 문화, 예술 교육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실례와 이것이 의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대상 및 방법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술가들이 교수자로서 진행된 본 정규 교과목 외 교육 활동 과정은 2008학년도 1학기 기간 중에 총 5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Table I). 본 교육과정을 진행한 예술가는 총 다섯 명으로서 수업이 이루어진 시간 순으로 강진화 화가, 장석원 일러스트 작가, 정주하 사진작가, 박광정 연극 연출가, 황미나 만화작가였다. 본 과정에 참여한 의과대학 학생 수는 총 25명으로 성별은 남자 10명, 여자 15명 이었으며, 학년은 예과 7

명, 본과 18명이었다. 참가자는 미술, 사진, 연극, 만화 등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꾸준히 경험을 갖고자 노력했던 학생들로 한정되었으며 본 과정에 참가하면서 이전에 작성된 원고나 그림, 사진 포트폴리오 등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교육 전 과정에는 의과대학 교수가 지도 교수로서 함께 하였으며 본 교육 과정의 준비와 진행, 끝 난 후의 피드백을 담당하였다.

선생님은 전공의 시절 취미로 시작하신 유화를 버리지 않고 꾸준히 갈고 닦아 이제는 국내외 여러 그룹전에 참여하고 수차례 수상경력도 있으신 중견 작가로서 입지를 다지고 계셨다. 이번 개인전만도 벌써 4번째. 큰 욕심 없이 시작했던 일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고,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만은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며 우리에게도 좋은 취미를 잘 발전시켜서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셨다. 같이 갔던 미술반 학생들 모두에게 귀감이 될만한 내용이었다.

결 과

본 교육 프로그램을 첫 번째로 진행한 예술가는 강진화 서울대병원 강남건강진단센터 영상의학과 교수로서, 1998년 제4회 대한민국 국민미술대전에서 입선한 이후, 3회 서울미술전람회 입선, 국내외 각종 갤러리 그룹전과 시드니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등 미술에 있어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화가이다. 개인전은 2002년, 2005년과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가졌으며, 4번째 개인전이 열린 2008년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시간 중에 의과대학생들과의 교과목외 활동교육 프로그램이 인사동 AKA 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과대학생은 총 5명으로 성별은 남자 2명, 여자 3명이었으며 학년은 예과 1학년 1명, 예과 2학년 2명, 본과 3학년, 본과 4학년이 각 1명씩이었다. 이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꾸준히 미술반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평소에도 미술, 특히 회화 분야에 관심이 많은 상태로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를 만남으로서 의과대학의 의학 학습에만 매몰되지 않고 학업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미술을 통하여서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지속적인 계기로 삼고자 하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두 번째로 진행한 예술가는 장석원 일러스트 작가로 연세대학교 경제

Table 1.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가들이 진행한 교과목 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담당 예술가	전문 분야	일시	참가학생수	성별		학년 예과 본과
				남	여	
강진화	회화(유화)	2008년 4월 27일	5	2	3	3 2
장석원(밥장)	일러스트	2008년 4월 27일	6	3	3	3 3
정주하	다큐멘터리 사진	2008년 5월 7일	5	2	3	0 5
박광정	연극	2008년 5월 12일	6	3	3	0 6
황미나	만화	2008년 6월 21일	3	0	3	1 2
			25	10	15	7 18

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2005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현재는 밥장이라는 예명으로 '비정규 아티스트의 홀로그램', 'HOT' 등의 책과 '밥장의 에피파니'(blog.naver.com/jbob70)라는 블로그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의과대학생들과 장석원 작가와의 활동 교육 프로그램은 4월 27일, 저녁 식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이루어진 작가님과의 만남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

일러스트 작가로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밥장 작가님과 또 한 분의 예술가이신 정태섭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얼마나 자연스럽게 유쾌하게 어울려질 수 있는지 볼 수 있었다.

같은 자리에서 그 분위기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였다.

밤늦도록 이어진 이날 즐거운 모임을 통해 다들 오랜만에 다양한 생각을 하고, 각자 한 가지씩의 새로운 계획을 품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과대학생은 총 6명으로 성별은 남자 3명, 여자 3명이었으며 학년은 예과 1학년 1명, 예과 2학년 2명, 본과 3학년 2명, 본과 4학년이 1명이었고 이 학생들도 앞서서의 강진화 교수와의 교육 프로그램 때처럼 미술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의 표현처럼 학생들은 의과대학 학업에 뿐만 아니라 사고와 상상의 폭을 확장시키는 자극을 받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품어볼 수 있

는 시간으로 본 시간은 진행되었으며 이는 열정적인 한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촉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세 번 째로 진행한 예술가는 정주하 백제예술대학교 사진영상과 교수로서 '사진적 폭력(1993)', '땅의 소리(1999)', '서쪽 바다(2004)' 등 작가만의 특유의 앵글을 갖고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어오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진 작가이다. 독일 쾰른 예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독일 Bielefeld의 Fotoforum Schwarzbund, Krefeld의 Gallerie Fabrik Heeder, 서울 예술의 전당, 선재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미국 Chicago의 The Museum of Contemporary Photography, 미국 Houston의 Williams Tower Gallery, 일본 사이타마의 근대미술관 등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개인전, 그룹전을 가졌으며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불안, 불-안, A Pleasant Day> 사진전을 열었다. 의과대학생들과의 시간은 이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기간 중인 5월 7일에 아트선재센터에서 이루어졌다.

내 포트폴리오를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정주하 작가와 함께한 7시간은 내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쉬운 길을 찾지 않고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똑바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된분을 만나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예술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과대학생은 총 5명

으로 성별은 남자 2명, 여자 3명이었으며 학년은 본과 1학년 1명, 본과 3학년과 본과 4학년이 각 2명씩이었다. 참가 학생들은 의과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사진반을 하면서 평소에도 사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 날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각자 자신이 이제껏 만들어온 사진 작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였다. 일회적으로 예술가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의과대학 생활 중에 자신이 관심을 갖고 만들어 온 결과물이 연결이 되어서 소그룹 교육 시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가한 학생들이 이 교육 시간에 대하여 갖고 있는 동기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가를 이끌어내고자 한 본 프로그램 담당 교수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네 번 째로 진행한 예술가는 박광정 연극연출가로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1993년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을 수상하였으며 ‘마술가게(1992)’, ‘비연소(1996)’, ‘모스키토(1997)’, ‘저 별이 위험하다(2000)’, ‘매직타임(2006)’, ‘진술(2006)’, ‘진짜, 하운드 경위(2007)’ 등 수많은 연극과 뮤지컬을 연출하였고 직접 연극,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배우이며 극단 파크의 대표이다. 특히 영화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2007)’에서 주연으로 연기하고 의학드라마 ‘뉴하트’에 출연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운데 진단받게 된 폐암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연극, 영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의과대학생들과의

만남은 극단 파크의 열세 번째 공연인 ‘서울노트’가 열린 정보소극장에서 2008년 5월 12일 이루어졌다.

우리는 박광정 배우의 연출작 ‘서울노트’를 관람하고 함께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폐암 투병 중이셨지만 일일이 악수하며 사인해주는 열의를 보여주시는 등, 산 교육의 귀감이 되는 것으로 느꼈다.

박광정 배우와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교수님께서는 의사도 이젠 창의적 발상과 함께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분야에 다양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의사이기 이전에 과학자로서 다빈치처럼 항상 끝없는 호기심과 열정에 불타오르는 교수님을 보면서 앞으로 의사가 될 우리가 지녀야할 것은 바로 그런 다빈치적인 사고와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과대학생은 총 6명으로 성별은 남자 3명, 여자 3명이었으며 학년은 모두 본과 2학년이었다. 이전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광정 배우와의 시간에 참여한 의과대학생은 기회가 되어서 그냥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입학 때부터 연극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도 연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배우이자 연극을 연출한 작가를 직접 만나 보고 연극을 관람한 후에 담당 교수와 함께 연극 문학과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소그룹으로 토의한 경험은 참가한 학생들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주었으며 평소의 의과대학 생활에서 누려보지 못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미 연극반에서 활동하면서 동기 부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관

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예술가와의 만남은 더욱 큰 교육 효과를 가져 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다섯 번 째로 진행한 예술가는 황미나 만화작가로서 1980년 ‘이오니아의 푸른별’로 데뷔한 이래 대한민국 만화계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만화 작가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우리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1985)’, ‘수퍼트리오(1990)’, ‘파라다이스(1991)’, ‘윤희(1993)’, ‘이씨네 집 이야기(1996)’, ‘just Friend(2000)’, 등 수십 편이 훨씬 넘는 작품이 있으며 1994년에 발간된 ‘레드문’은 인기온라인 게임의 배경이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99년 제 1회 오늘의 우리 만화상, 2005년 제 5회 고바우 만화상을 수상하였다. 황미나 작가의 의과대학생들과의 시간은 2008년 6월 21일에 저녁 식사와 함께 5시간 넘게 동안 진행되었다.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작가라는 위치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존재에 대해 가지는 선생님의 의문과 관심은 즐거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었다.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많은 꿈이 내겐 있었다. 그리고 그 꿈들은 내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대개 교과서 속의 위인들 보다는 소설이나 영화, 음악 속의 영웅들을 보고 들으며 키운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만화는 단연코 가장 매력적이고 파워풀한 매체였는데, 만화가란 한 인간이 창조해내는 새로운 세계는 거대한 우주처럼 한 작은 꼬마를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만화, 그리고 만화가란 단어는 의과대학 생활이라는 뻑뻑한 흐름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추억이자 꿈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져간 부끄러운 옛 그림들을 선생님께서 진지하게 보고 평해 주실 땐 너무 긴장해서 얼이 빠졌던 것 같다. 내 그림을 황미나 선생님께서 봐 주시다니! 무작정 그림만 그리고 지냈던 학창 시절에도 이런 상황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그리고 황미나 선생님께선 참석했던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직접 그림을 그리며 사인을 해주셨다. 프로 만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 우리들 모두 잔뜩 설레어서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잠간은 꿈을 잊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 요즈음, 가슴 뛰는 오랜 추억들을 돌이켜 보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날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과대학생은 총 3명으로 성별은 모두 여자였으며 학년은 예과 2학년, 본과 3학년, 본과 4학년이 각각 1명씩이었다. 작가는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존재이며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존재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갖게 된 의문과 관심이 나누어지고 풀릴 수 있었다는 한 참가 학생의 표현처럼 일견 보기에는 의과대학 교육과 관계 없어 보일지도 모르는 만화작가와의 시간은 의과대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의과대학의 많은 학습량과 경쟁적인 학점 관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잊고 있었던 꿈이 교과목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예술가와의 만남으로 새롭게 되살아나고 한 명의 의사로 균형 잡히게 커가며 인간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안목을 풍부하게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본 프로그램의 의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고찰

이호영(2006)은 의사들이 인간의 삶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풍부한 인간성으로 지식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각자의 마음과 머리 속에 포용통합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의사들의 의식과 자유로운 상상력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학교육 과정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키기를 제안하였다.

언어

자유로운 상상력

공감(empathy) 능력

인간성과 창의성이 주는 즐거움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사실상 좁은 교실 안에서의 정규화되고 규격화된 교육 환경으로는 체득되기 힘들다. 의과대학생들이 이러한 정규화되고 규격화된 교육 환경에서 탈피하여 숨겨져 있었던 능동성과 창의성, 개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앞으로의 의사로서의 삶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획득된 의학교육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다. 학습자로서의 의과대학생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개성을 갖고 있고 무한한 발달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교수자가 제시하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비추어 인지, 분석,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재구성하고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자는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독창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이승희, 2006)

환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이야기가 가진 의미를 잘 물어보고, 환자의 삶이 고통과

더불어 어떻게 공존하고 인내 가운데 있으며, 그 가운데서 어디서 삶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래서 삶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자유로운 상상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인간이 고통, 고뇌, 좌절, 죽음을 겪으면서 순간순간 어떤 의미를 깨닫고 또 어떤 의미를 만들어 가는지는 오직 인간의 자유로운 소통에 의해서 비로소 이해되고 또 서로 경험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이호영, 2006) 이에 의과대학생들이 이러한 의사로 성장하는 데 있어 본 과정이 갖고 있는 특징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의과대학생들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만나게 하여 소그룹 교육 활동으로 운영된 본 정규 교과목 외 교육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구성을 처음부터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회화,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연극, 만화와 같이 의학 학업 외의 문화, 예술 분야에서 관심을 꾸준히 보인 학생들을 우선 모집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관심 분야에 맞는 예술가에게서 직접 교육받게 해주었다. 예술가 중에는 의과대학 졸업생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학생들은 좀 더 쉽게 동질감과 실행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와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스스로 갖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의 고양은 이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더 좋은 동기 부여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습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문화, 예술적 역량을 갖춘 의과대학 교수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가를 들 수 있다. 지도 교수가 매 교육 활동 시간마다 의과대학생들과 함께 직접 참여하면서 소그룹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예술가와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진행된 시간에 대한 피드백과 소감을 보고 받았다. 직접 영상, 사진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이기도 한 의과대학 교수의 열정과 의지는 본 교과목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으며 이를 통하여서 참가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만족도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교수자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명제는 본 프로그램의 진행에서도 확인되었다.

셋째, 정규적인 의과대학 학습 환경에서는 만날 수 없는 교수자의 선별이다. 문화, 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분명한 작품 세계와 예술 철학을 갖고 있는 예술가와의 만남은 참가 학생들의 소감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사실상, 그 자체만으로도 학습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과대학생 때부터 학교와 병원 내에서 외부와 차단당한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접촉과 만남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열린 방식의 교육은 인문학과 예술을 키우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임상 환자 진료의 만족을 높이는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럽의 의학교육권이 선호하고 있다. 유럽의 학계에서는 이미 인문학 관련 학술지가 산출되고 있으며 그 안에 게재되는 논문의 내용들은 임상에 적용되는 철학적 배경이론, 의학철학, 역사, 의사 개인의 사회과학적 고민, 의학교육의 사유 등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다(최종덕, 2006)..

수 천년동안 행해져 왔던 가르치는 행위와 배우는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현장에 있는 구성원들에게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업이다(이승희, 2006).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술가들이 교수자로서 진행한 본 정규 교과목의 교육 과정과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이러한 어렵고 힘든 과업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승희(2006). 가르친다는 것과 배우는 것. *Yonsei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 8:2
- 이영미(2003). 문학과 의학교육. *Yonsei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 5:1
- 이호영(2006). 기술과 자유로운 상상의 연결 패러다임. *Yonsei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 8:1
- 전우택(2001). 사회의학. *Yonsei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 3:2
- 최종덕(2006). 의료와 의학의 인문학적 통찰. *Yonsei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 8:1
- Charon R(2000). *Literature and Medicine: Origin and Destinies*, *Aca Med*, 75, 23-27
- 정태섭
<http://www.tschung.pe.kr/>
- 강진화
<http://myhome.medigate.net/~peacesta/>

박광정

<http://www.parktc.com/>

장석원(밥장)

<http://blog.naver.com/jbob70>

정주하

<http://www.kcaf.or.kr/art500/chungchuha/>

황미나

<http://www.fnmina.com/>